

제6기 KAPE 주니어보드를 마치며...

서울지원 원재선



제6기 주니어보드

축산물품질평가원에는 KAPE(Korea institute for Animal Products quality Evaluation) 주니어보드(Junior board)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웹 환경에 친숙하신 분은 유튜브(Youtube)와 같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저희의 활동 모습을 이미 보신 분도 있겠지만, 축평원 외부에서는 솔직히 생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평원 내부에서도 있다는 것은 알지만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분도 있을 테고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2년 전 6기 주니어보드 모집 문서를 보고 생소한 단어인 주니어보드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궁금해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중견 간부인 과장급 이하의 직원들로 구성된 청년중역회. 웬지 무겁고 어려운 이미지와 업무의 연장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관심은 있었지만 신청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주니어보드를 경험한 선배님께서 적극 추천해 주셨습니다. 입사 5년차 이하의 젊은 직원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도출하고, 시니어 계층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지원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현장업무를 하면서 다른 지원의 직원들과 접촉하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니어보드를 함께하면 주니어보드를 통해 타 지원의 젊은 직원들과 소통하고, 일률적인 업무와는 다른 여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 바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KAPE 주니어보드는 지난 2006년 'APGS(Animal Products Grading Service) 주니어보드' 출범을 시작으로 합니다. 이후 경영진과의 소통시간, GWP(Great



경영진과의 간담회



경영진과의 감성산책



KBS 1대100 출연

Work Place)를 위한 팀별 크로스 미팅, 가정의 날 운용 등 새로운 제도 제안, 사회공헌 활동, 기관 홍보 UCC(User Create Contents)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니어보드는 2년을 회기로 한 기수제로 운영합니다. 현재는 제6기에 해당하며 2014년 3월 21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2016년 2월로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6기로는 저를 비롯해 이나영, 최동희, 이한현, 유호선, 권하정, 안성환, 김병기, 조연희, 이곤수, 박현정, 김영문, 서지원, 김경백, 김보현 평가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6기 주니어보드는 기존의 활동인원수를 줄여 좀 더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 지리적 여건으로 자주 만날 수 없기에 온라인 및 SNS(Social Network Service)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해 활동 계획을 준비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더 친밀해질 수 있었습니다. '축산업계 주니어계층과의 공동 세미나 개최와 '경영 및 노동조합 대표와의 간담회', '경영진과의 감성산책' 등을 통해 딱딱한 분위기를 벗어나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며 대내외적으로 유대관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 창립 제25주년 기념으로 '2019 KAPE NEWS'와 '세종 신청사 소개영상'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스토리를 짜고, 촬영과 편집을 하며 여러 아이디어를

내어 밤샘으로 제작한 UCC는 우리 힘으로 만들었다는 자부심에 의미가 컸고, 반응도 좋아 뿌듯했습니다.

활동 중 2014년 7월 KBS 교양프로그램인 '1대100' 출연한 것 역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여건상 회원 모두가 참여할 수는 없었지만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얼굴로서 방송에 출현해 우리기관을 알리고, 좋은 축산물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1대100' 출연은 개인적으로도 잊지 못할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무언가를 만들어 내야한다는 심적 압박이 있었고, 바쁜 업무 외에 개인시간을 내어 주니어보드 활동을 하는 것이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직적 업무가 아닌 우리 스스로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면서 주니어보드 활동은 차세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발돋움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그럴 때 마다 많은 용기와 응원을 보내주신 경영진과 동료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후배님들에게 주니어보드 활동을 먼저 해본 경험자로서 주니어보드는 지금 이 순간에만 할 수 있는 젊은 직원들의 특권이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제7기 KAPE 주니어보드는 20명 이내로 오는 4월 모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입사 5년 이하 축평원 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농림경제부**